

(No Subject)

From: skoong,jlt (skoong,jlt@gmail.com)

To: su_koong@yahoo.com

Date: Saturday, July 8, 2023 at 11:00 AM MST

#246. 인생의 본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이사야 40:6-8

시편 90:6 102:11 103:15

야고보 1:10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 풀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에서 본다면 지구상에는 현재 80억에 달하는 풀들이 있으며 그 풀들 중에는 트럼프라는 풀도 있고 바이든이라는 풀도 있으며 푸틴이라는 풀도 있고 시진핑이라는 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풀들은 저마다의 꽃을 피며 아름다움과 자랑스러움을 뽐내며 혹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혹 전직 대통령으로 또한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으로 못 다른 풀들보다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는 못 미쳐도 각 분야의 석학으로 혹 세상의 최고 부자나 경영인으로 자기의 영광을 뽐내는 풀들이 있다는 것이다.

허나 이들은 다 많은 풀들중 하나이며 그들의 운명은 다른 풀들과 같이 곧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이다.

다른 성경 말씀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라 하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다.

위 말씀에서 풀과 대조되는 단어는 주의 말씀이며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그 말씀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생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바로 깨닫는 것이 각성하는 일이며 그 후에 우리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참 겸손을 배울수 있게됨을 알게 된다.

이 본질을 깨달음이란 우리가 굳이 부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잊으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며 바로 모든 인생들의 피할수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각성하고나면 비로소 자신의 본질에 대한 참 겸손을 배우게 된다.

이 겸손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본질적 겸손이며 자신의 위치를 알게되는 참 가치관의 정직성인 것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본질을 비교하고 깨닫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겸손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겸손한 척 하려거나 겸손을 자기를 꾸미는 미덕으로 삼으려는 것과는 다른 진실과 본질 그 자체의 겸손을 얻게되는 것이다.

이제 자랑스런 꽃을 피운 풀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본질을 자각할 능력이 있어 자신이 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제서야 모든 것을 돌아보니 풀의 생명과 그 피운 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물받은 것이요 세상 만물의 모든 다른 영광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들의 영광과 모든 다른 생명들의 영광도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과 선물로 이루어져 있는 본질을 볼 눈이 열림을 체험할 것이라 믿는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한낱 풀들도 꽃피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를 깨닫고 믿게되는 이라면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본질을 깨달으면 겸손하여지고 그러한 겸손한 가치관에서 참된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를 체험케 되는 자는 복받은 자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라 믿는다.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 통치자 하나님.

그가 모든 만물의 축복을 주심을 넓고 깊게 아는 풍성한 감사가 되도록 더욱 본질에 충실하고 진실한 겸손을 통해 참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항시 믿음위에 굳게 서기를 힘쓰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6/26/2023. 14:05. 월요일. 뉴튼집 마당 텃밭 농사중에.

Sent from my T-Mobile 5G Device